

봉사부 탐방기 (사진 사역팀)
교회를 기록할 수 있는곳엔 우리가 있다!



사진사역팀은 체계적인 사진자료 보존과 예배와 교회행사시 공인된 촬영 사역으로 섬기는 팀이다.

Q. 올해 신설된 사진사역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의 역사기록 보존과 교회내의 각종 사역 및 봉사부의 현장취재와 촬영을 통하여 교회홈페이지 업로드 및 각종사역을 일반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Q. 그간 사역하시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이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각종 행사 및 사역지에 사진촬영이 필요한곳이 많이 있으나 봉사자가 적어 애로사항이 있으며 작년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판매된 작품의 수입금의

일부를실로암 안과병원에 기증하여 10명의 앞 못보는 시각장애우들의 눈을 수술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해 준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무지개축제와 PD40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호응 속에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Q. 요즘 사진촬영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나 동호회가 많은데 이 사역에 참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활동하시는 성도님들은 몇 분이신지요?

자격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DSLR 카메라를 사용할 줄 알고

봉사정신만 투철하면 됩니다. 현재 사진사역팀에 5명이 봉사하고 계시고, 사진학교에서 배출하신 분들, 사회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신 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Q. 교육이나 정기적모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요?

교회에서 양육과정으로 사진학교를 개설할 때,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사역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구요, 주님의교회 교우들로 구성된 사진동호회에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출사가 있으며, 홈페이지에 항상 공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교우님들에게 바라는점이 있다면?

금년에도 정기 사진전시회와 전교인 요람촬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분도 빠짐없이 꼭 촬영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찍은 사진과 흑백사진은 바꾸시고 이번기회에 요람사진 찍으시면 특별히 포토샵 처리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관련 행사사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히 촬영해드림을 약속드리며 사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선 기자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오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통 권 제 252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7월 12일

〈6월28일 창립기념주일〉 주님의교회 21주년 창립기념주일예배

6월 28일 주일, 주님의교회가 스물한번째 생일을 맞아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생일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4부예배 시간에는 임직식을 통하여 장로 2명, 집사 19명, 권사 21명이 임직받았다. (아래 명단)

장로(2명): 최종명 박중순
집사(19명): 남기방 장정덕 이동훈 한석주 황의완 김윤섭 서기춘 전재은 임경수 이상욱 임영규 김윤희 김동익, 이병권 황남효 이동희 이현식 박영상 홍기협
권사(21명): 황옥자 김순자 박해진 정숙자 허진오 정선용 이기원 조원숙 이승주 김영희 이정진 김천희 김희순 강정녀 정연희 정혜연 최영숙 이은영 김진숙 이은순 박성자



임직식 제직을 담당한 한옥현 집사에게 감사패 전달 스물한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컷팅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교회 방문



지난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북한선교팀과 4여성교회가 하나원에 있는 하나교회를 방문하였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교육을 담당해온 이래 7월 8일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북한선교팀원과 여성교회원들은 1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특별찬양을 하고, 4여성교회에서 준비한 떡 500인분과 아이들을 위한 다과를 제공하였다. 다음날 28일 주일 오후에는 주님의교회 축구팀과 하나원 교육생들이 친선 축구시합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하나원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로 입국한 1만 6513명의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1만 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나원에 입소하면 3개월간 직업적응훈련 등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000집사

무지개축제 수호천사의 '오병이어' 소망



지난 어린이날 무지개 축제가 어린이들이 '수호천사' 후원금 모금액(2백만원)을 어느 곳에 후원할지 기도하는 중, 고창 벨엘교회와 연결되었다. 지난 7월 3일, 8명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방문해 오병이어의 소망을 안고 수호천사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고창 벨엘교회에서는 시골 조손가정(손자, 손녀가 부모없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으로 잠시 중단하고 기도 중이었다고 한다. 벨엘교회 김향곤 담임목사님으로부터 비전을 듣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중에 세세하게 간섭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000집사

중보기도팀장 수련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6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강화도에 있는 연동교회 수양

관으로 중보기도사역팀 스텝 등 21명이 수련회를 떠났다. 초여름 아침 햇살을 받으며 1시간 반을 달려 강화도에 도착. 읍내와 저수지를 지나니 숲속에 있는 정갈한 수양관 건물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박혜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영적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과 기도회 시간이 끝나고 맛있는 식사 후, 수양관 뜰로 나가 자연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늘도 우러러 보고 심호흡도 하였다.

김주형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 동역자의 눈동자를 통해 태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그속에서 보았다. 눈물로 범벅된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을 감싸안으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고, 서로에게 감사하였다. 이어서 박목사님이 준비하신 '주님!' (빙

고)게임으로 서로를 축복하였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말씀을 품고 하는 사역',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역', '한 몸이 되어 협력하는 사역' 등 여섯 주제의 말씀에 따라 활물을 빚어서 성경말씀을 표현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였다.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해지는 들녘에서 먹은 갈갈한 칼국수와 쭉뚫두가 일품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의 한강, 황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충성되게 섬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김경미 집사

편리한 도서실카드로 바꾸세요!



편리한 카드식 대출증으로 예쁘게 바뀌었다. 카드 앞면은 진한 녹색 바탕에 우리교회의 새로운 로고와 함께 회원번호, 이름 바코드가 부착되었고 뒷면에는

카드식 도서대출증으로 바꾸세요!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했던 명찰식 대출증이 지갑속에 넣고 다니기에

이용안내가 기록되어 있다.

새 카드로 교체함과 동시에 도서실 이용 내용도 약간 변경되었다. 연체도서가 많은 관계로 1인 대출 도서수를 두권으로 줄이고 대출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리게 되었다. 반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체자로 입력되어, 연체가 해지될 때까지는 도서대출이 금지된다. 도서실사역팀은 도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기존 회원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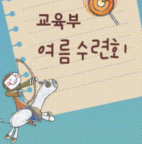
새카드는 주일날 5층 도서실에서 받아갈 수 있다. 도서실사역팀장 최정숙집사 010.3470.0806

※정정합니다.

6월 28일자 함즐함울 (251호) 2면 최분자 권두언 기사에 실린 이영남 권사의 사진이 잘못되어 이에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넌,
꼭 와야해!
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이루어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계절입니다.
2009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아부 수련회

딸기 향처럼 달콤달콤- 아기 향기가 가득한 영아부입니다. 저희 영아부는 15개월-3세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자라는 곳, 즐겁고 유쾌한 사랑의 장입니다. 특히 7월 19일(주일)에는 11시30분-2시30분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신기한 성경이야기, 중국중국 인형극장, 영차영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로 성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을 보내주세요.

전은숙 전도사



유아부 수련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주님의교회 썬트네 1,2부는 2009년 7월 18일부터 7

월 19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라는 주제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자라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썬트네 여름성경학교는 재미있는 말씀과 인형극과 찬양과 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영적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9.7.18일(토)~19(주일)

장소 : 주님의교회 유아부실

문현주 전도사



유년부 수련회

샬롬. 저희 포도나무 유년1,2부에서는 오는 2009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위치한 '누리문화마을'에서 실시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입니다. 바른 섬

김의 모습을 보여준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과 그와 반대되는 인물들을 동시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포도나무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가 이를 위해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9.7.26(주일)~28(수요일)

장소 : 안성 누리문화마을

김수연 전도사



유치부 수련회

올해는 주님의교회 유치부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름 해 보다 더욱 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교회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의 주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사랑 타고 섬김이 승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섬김"으로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 (마태복음 22장37-40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유치부는 섬김의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2009년 7월 25-26일

장 소: 유치부실

회 비: 7,000원(T-Shirt 포함)

전재표 전도사



초등부 수련회

햇살뜨락 초등부에서는 이번 8월 2일(주일)부터 4일(화)까지 2박 3일간 여름캠프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

니다. 이번 여름캠프의 주제를 'He is changing me!(고후 5:17)'로 세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더 큼니다. 소주제는 1. '기도의 변화', 2. '삶의 변화', 3. 'He is changing me!'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박 예배, 오리엔티어링, 저녁집회, 찬양기도회, 모둠QT, 미니올림픽, 모둠성경공부, 물놀이 레크레이션, 미션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가장 좋은 복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보다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중보적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락 전도사

소년부 수련회

예수님의 사랑 한 아름 가득한 아름드리 소년부입니다! 아름드리 소년부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모여 꿈을 키워가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 2009년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람 - The transformed(변화된 사

람)'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소년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Listen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고(Come to God),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Dwell to God)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일정: 2009.7.25(토)~27(월)

장소: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이선림 전도사



팜콘트리 중등부 여름캠프

팜 콘트리 중등부는 "W.I.T.H (Walking In the truth - 요 1:17)"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의 7가지 가치(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를 만나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중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 제: 2009. 7.3(금)~8.2(주일)

어디서: 천안 백석 연수원

연락처: 부장 지호선 안수집사

(011-9077-5255)

임경순 전도사

비전트리 중등부 수련회

비전으로 열매맺는 비전트리 고등부에서는 7월18일(토)부터 7월20일(월)까지 2박3일간 백석대 연수원 (천안시소재 전화.041.564.1391)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내마음을 살피는 내적여행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고 비전을 제시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전트리 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 환영합니다. 이번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것입니다. (회비 2만원) 문의 김낙균 부장 (0164352254)

김주형 전도사

젊은이 공동체 여름 단기선교

본디아! 동티모르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본디아! (동티모르 때투어로 '안녕하세요') 지난 6월29일부터 7월9일까지 주님의 교회 젊은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11명(공광승 목사, 서재욱 전도사, 김영숙 권사, 김다연, 유주희, 서경석, 서현옥, 김선주, 김지희, 김지용, 이민석)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티모르섬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동티모르에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이번 동티모르 비전트립은 주님의 교회 협력 선교사인 송강호 선교사님(개척자들)과 개척자들 소속의 현지 스텝, 한국인 스텝들과 함께하는 일정으로 9박10일간 진행되었다. 동티모르 현지에서 약10년간 평화사역과 이산가족만남을 돕는 사역을 진행해온 개척자들은 동티모르를 향한 선교단체중 평화사역에 주력하는 가장 전문적인 팀이다. 준비모임과 현지에서의 사역을 모두 함께 진행하였는데 동티모르에 평화를 심기위해 팀 안에서 먼저 서로 하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현지에서 따

로 구별되어 살지 않고 현지주민의 생활대로, 그들이 머무는 방식을 존중하며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개척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원 모두도 9박10일간 철저히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스텝들의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동티모르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보며 하나님이 동티모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께서 그 땅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았고, 이번 비전트립이 각자 각자에게 어떤 비전이 허락된 기회였는지를 나누며 풍성한 마음으로 잘 도착하였다. 기도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기도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주시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서재욱 전도사

